

[illegible]

- 오염물질의 이동과 수질변화를 조사한 이흥근교수팀의 수리모형 실험에 의하면 바닥에서 떠오른 중금속이 북한강물과 혼합되어 그 농도가 희석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형실험이 갈수기와 성수기의 유량변동까지 모두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다.

갈수기와 성수기의 차이 - 지난 6월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정용 교수) 가 발표한 "음용수중 THM의 오염과 그 위해성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1월과 2월의 THM 평균농도는 9월과 10월에 측정한 THM 농도보다 6배정도 낮게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갈수기냐 성수기냐에 따라서 상수원 수질오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시 정수장 정수처리능력 - 또 지난 10월 서울 시립대에서 열린 대한위생학회 세미나에서 김동민 교수는 서울시의 재래식 정수처리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은등 중금속류는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김교수도 서울시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한 첫번째 대책으로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그 안에서의 오염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이기도 한 김교수의 권고를 환경처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리모형 실험 결과
THM 농도 54.56농도
농도지표
상수원 오염도
정수처리능력
1948

3개지점
정수처리
결과